

천덕송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1)

김정희¹⁾

1. 들어가는 말

노래는 사람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힘이 있다. 말이나 글과 같이 논리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영혼의 문을 두드리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어느 집단이나 자신들의 정체성을 담은 노래를 만들어, 이를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고 공동체의식을 높여왔다. 아주 먼 옛날부터 농부들은 마을 단위로 들노래를 부르며 힘 합하여 땅을 갈았고, 어부들은 뱃노래를 부르며 고기를 잡았다. 서로 다투던 사람들도 같이 노래를 하며 일하는 동안은 한마음이 되었다. 우리가 다함께 천덕송을 부르는 것도 동귀일체(同歸一體)하고자 함이 아니겠는가.

포덕 158년이 흐르는 동안 교단 내에서 많은 노래들이 만들어지고 불리었다. 특히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적 질곡을 겪던 당시의 천덕송은 매우 능동적으로 시대를 반영하였다. 그러나 당시에 불린 많은 노래들 중 일부만 천덕송으로 공식 인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포덕132년(1991) 송가 편에 20곡이 추가로 수록된 이후 천덕송은 26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²⁾

현재 경전에 수록된 곡은 모두 73곡(주문 1곡, 천덕송 32곡, 송가 40곡)으로, 천덕사은과 무극대도를 노래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핵심적인 교리가 담긴 스승님들의 설법 중 아직 천덕송으로 담아내지 못한 내용들이 많아, 이를 천덕송으로 제작하는 일이 시급하다. 또 현재 불리는 천덕송 중 일부는 내용이나 형식에서 다소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그동안 그러한 문제들이 공식적으로 제기되지 못하였는데, 이런 문제들도 개선이 필요하다. 나아가 변화한 시대에 발맞춘 새로운 천덕송의 창출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다.

이에 일제강점기의 천덕송에 대해 《천도교회월보》(이하 ‘월보’)를 중심으로 살펴보며 어제의 천덕송에서 교훈을 찾고, 오늘의 천덕송을 돌아본 후, 내일의 천덕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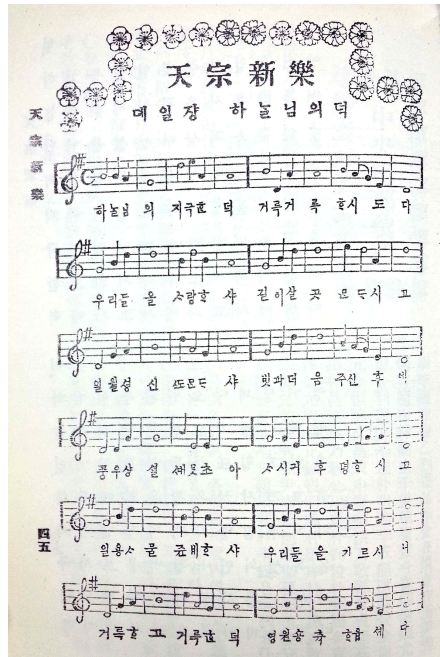
2. 일제강점기의 천덕송

월보에 수록된 최초의 악보는 포덕51년 월보 제3호에 실린 ‘천종신악(天宗新樂)’ 제1장 <하늘님의덕>이다.

1) 국악작곡가/민요연구가,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강사.

2) 천덕송의 전반적인 전개양상과 작사, 작곡자에 대한 내용은 김광순, 「동학음악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부산: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에서 다룬 바 있다.

<악보 1> 제3호(포덕51년, 10.15.) 45쪽:
天宗新樂 데일장 <하늘님의 덕>



한울님의 덕을 찬양하는 4.4조의 노랫말로, G장조 조표에 4/4이고, 종지구에서 Si가 1회 쓰였으나 대체로 반음이 없는 5음계로 전개된다. 이 곡은 현재 제28장 <한울님의 덕>의 원곡이다. 그 다음 악보는 월보 제122호(포덕61.10.15.) 77쪽에 수록된 <우리의 길>로, 일제강점기에 유행하던 창가풍의 곡이며, 제18장 <우리의 길>의 원곡이다. 제126호(포덕62.2.15.) 37쪽 및 제127호(포덕62.3.15.) 29쪽에 수록된 <삼월십일기도가>는 제19장 <대신사 환원기도가>의 원곡이다. 제127호(포덕62.3.15.) 30쪽에 수록된 <오관가>는 노랫말이 현재의 곡과 같고 선율은 다르다. 제128호(포덕62.4.15.) 25쪽에 수록된 <공락가>는 지금 노래와 각 절의 종지구 및 후렴 선율 일부만 약간 다르다.

이상의 곡들은 전반적으로 5음계 위주로 되어있으나, 우리나라의 전통어법이라기보다는 <석별의 정>(Auld Lang Syne)이나 <어메이징 그레이스>(Amazing Grace)와 같은 5음계 장조(pentatonic Major scale)에 해당한다. 종지에서 장조의 관용적 종지구를 쓴 점이 특히 그러한데, 이는 당시 유행한 창가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전통장단이 아니라 모두 서양음악의 가장 보편적 박자구조인 4/4를 썼으며, 오선보에 기보하였다. 5음계를 쓴 것은 천도교가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종교라는 점을 염두에 둔 결과로 보이나, 전반적으로는 서양음악양식이 지배적이다.

근대적 찬불가의 효시인 백용성의 악보는 1927년, 원불교 최초의 성가 <회가>는 1933년, 대종교의 한얼노래는 1942년에 만들어졌다.³⁾ 이를 감안하면, 근대적 양식을 갖춘 <하늘님의 덕>이 포덕51년(1910)에, 그리고 나머지 곡들이 포덕61년(1920)과 포덕62년(1921)에 발표된 점은 당시의 천덕송이 매우 앞서가는 종교음악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수운대신

3) 변규백, 「신종교와 음악」, 《신종교연구》 제7집, 한국신종교학회, 2002, 58쪽; 김찬기, 「천도교음악(천덕송) 형성과정의 연구」, 《국제원광문화학술논집》 제1집, 제2권, 익산: 원광보건대학교 원광문화연구원, 2011, 161쪽 참조.

사의 가사 8편과 검결로부터 시작한 천덕송은 일제강점기 초기에는 오선보를 사용한 서양 음악적 단선율로 월보에 수록되었고, 포덕72년에는 찬송가식 4성체로 편곡되면서 체제를 갖추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실제로 당시 타 교단의 종교음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⁴⁾

<삼월십일기도가>에는 ‘천악(歙樂)’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한다. 이 용어 아래 수록된 곡은 <오관가>와 <공락가>까지 모두 세 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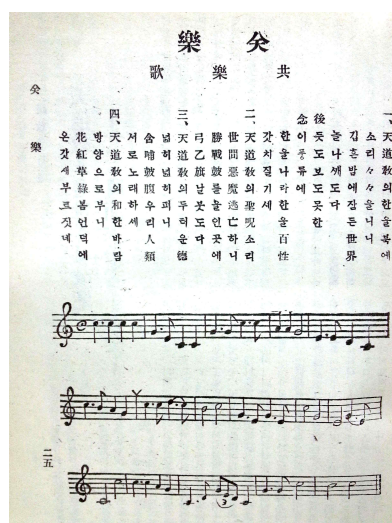
<악보 2> 제127호(포덕62년, 3.15.)

29쪽: 歙樂 <三月十日祈禱歌>



<악보 3> 제128호(포덕62년, 4.15.)

25쪽: 歙樂 <共樂歌>



악보에 보이는 ‘歙’자는 사전에 나오지 않는 글자로, 이에 대한 설명이 월보 제67호에 있다.

제67호(포덕57.2.15.) 3쪽: 敎理部 / 歙象觀義⁵⁾ (並序) / 崔安國

歙은 人乃天之天也니 卽 天道教 三一之意也라 天道教 - 傳統于神聖三師하야 以人乃天爲宗旨 而布德于天下
 下 三師宗傳이 有三經하니 曰 天宗 道宗 敎宗之三大法經이라.....(歙은 ‘인내천’의 ‘천’이니, 즉 天·道·敎 셋이 하나라는 뜻이다. 천·도·교 - 세 분 스승님으로부터 전해 내려와서, 인내천으로 종지를 삼아 포덕천하 할 새 세 스승님의 으뜸가는 설법으로 세 경전이 있으니, 가로되 천종, 도종, 교종의 3대 법경이라.....)

위 인용문에 의하면 ‘歙’자는 ‘人乃天’을 뜻하는 글자, 즉 ‘인내천 천’자이다. ‘人乃天’을 세로로 쓰면서 가운데 ‘乃’자를 생략하면 곧 ‘歙’이 되니, 그 모양에 인내천주의가 상징적으로 집약되어있다. 글자 한 자로 도의 종지를 표현한 그 발상에 무릎을 치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자를 오늘날에도 상용화할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하였으면 한다.

4) 천덕송이 불교, 원불교, 대종교 등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앞의 두 논문에 좀 더 상세히 나와 있다.
 5) 이 ‘歙象觀義’라는 글은 월보 제67~72(포덕57.7.15.)호에 연재된다.(제70호에는 빠짐.) 또 제76호(포덕 57.11.15.) 9쪽에는 같은 필자의 ‘歙憲要義’라는 글이 있는데, 이는 제77호(포덕57.12.15.)와 제79호(포덕 58.2.15.)호에도 이어진다.

포덕62년까지 월보에 간간이 보이던 악보는 이후 더 이상 보이지 않는데, 그것은 천덕송 책자를 따로 만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래는 천덕송 책자에 대한 광고이다.

제132호(포덕62.8.15.) 표지 뒷면 광고: (끝부분) “턴덕송 新刊 出來 定價 三錢 / 京城府 齋洞 八六番地 / 發賣所 普書館 / 電話 一九二五番” (천덕송 신간이 나왔음. 정가 3전, 경성부 재동 86번지, 발매소 보서관, 전화 1925번) (*제149·150에도 유사한 내용의 광고가 있음)

제154호(포덕64.7.15.) 끝면 광고: “.....이제 또 『音譜附(음보부) 天德頌(천덕송)』 萬餘部(만여 부)를 새로 刊出(간출)하엿싸오니 敎人(교인)되시는 이는 꼭 一部式(1부씩) 사 가시오.....”

제242호(포덕72.2.21.) 표지 뒤 광고 1면: 天德頌 “天德頌이라면 우리가 侍日(시일)마다 불오는 由來(유래)하던 天德頌인 줄로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七十年來(칠십년 이래)로 밤낮 읽던 歌詞(가사) 八編(팔편)을 章(장)을 가르고 有名(유명)한 樂家(악가)의 作曲(작곡)을 넣어서 만든 新天德頌(신천덕송)입니다. 方今(방금) 印刷中(인쇄중)이오니 (정가는 5전이오 대금은 필히 선금으로 하되 백부 이상을 주문할 시는 2할인) 조속 주문하시압”(*제243호에도 유사한 내용의 광고가 있음)

포덕62년(1921), 포덕64년(1923) 및 포덕72년(1931)에 각각 악보로 된 천덕송을 발행하여 교인들을 대상으로 판매하였으며, 포덕72년의 ‘신천덕송’은 이돈화 선생이 가사 8편에서 발췌하고 홍난파가 작곡한 12곡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천덕송이 별도의 책자로 판매되면서 월보에는 더 이상 악보를 수록할 필요가 없어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포덕62년 4월 이후로는 월보에서 노랫말만 보인다.

이제 월보에 수록된 노랫말들을 차례로 살펴보겠다. 아래 인용문은 현재 부르는 <오관가>와는 전혀 다른 노랫말이며, <무극송> 또한 지금은 부르지 않는 곡이다.

제71호(포덕57.6.15.) 언문11쪽: <오관노리 五歎歌> / 元明濬(원명준)
오만년 기벽운수 시호시호도홀시고 / 경신스월초오일에 무극대도처음난네
턴중신사턴명뵈야 한울곤쳐열으시고 / 도중신사도통니어 쌍을곤쳐명호시고
교중성사교법뵈야 사름곤쳐살니시네 / 삼세스승삼지리터 다시기벽이안인가
삼지뵈에참여호야 스승교훈뵈우리 / 스승은덕모를쇼냐 그은덕을갑홀야면
성경신법일치말고 겸심슈도하여보세 / 무엇으로슈도호노 오관뵈게다시업네
..... (*이하 ‘주문, 청슈, 시일, 성미, 기도’의 순으로 가사가 기록됨.)

제113호(포덕61.1.15.) 언문13~14쪽: <무극송> / 無極子(무극자)
一. 무극호신한우님이/무극무극무극일사/무극호신디신사여/무궁무궁무궁일사
二. 한우님과디신사는/영세불망일체신가/나리섯네나리섯네/한우님이나리섯네
(*이하 12절까지 있음. 이후 제120호까지 같은 필자가 쓴 같은 제목의 글이 비슷한 내용과 같은 운율로 연재됨.)

가사 8편과 같이 전통적인 4.4조의 운율을 가진 이러한 노랫말은 월보 곳곳에 보인다. 제 134호(포덕62.10.15.) 17쪽~19에는 <천덕사(기2)>의 제5~13절과 <탄신기념송>·<수도기념송>·<환원기념송>의 노랫말이 수록되어있다.(제12~16쪽은 누락됨)

전송되지 못했으나 인내천주의를 강조하고 시대정신을 적극 반영한 곡들도 여럿 보인다.

제135호(포덕62.11.15.) 46쪽: <人乃天의노래> / 何心齋人(하심재인)
못노라 靑年男女(청년남녀)야- 大丈夫(대장부)하는일이, / 그 무엇이라 하드냐? 劍(검)이라드냐? 銃(총)이

라드나? / 아니다 오는 世上(세상)의 丈夫事業(장부사업)은 人乃天(인내천)뿐인가 하노라 //

들어오는 世上消息(세상소식) 平和(평화)-하기로, / 나는 叮嚀(정녕)받았더니 말平和가 날 속인다, / 以後(후)란 아모말도 믿지 말고 人乃天 平和만 바라리라 (*8절까지 있음.)

제151호(포덕64.5.15.) 51쪽: <宗學院歌>(중학원가)

一, 五萬年(오만년) 無極大道(무극대도)를 / 天下(천하)에 넓히 펴려고 / 모헛네 우리 무리들 / 宗學院(중학원) 旗발(깃발) 미테로 모헛네 / 마름도 무겨울시고 / 갈길도 遼遠(요원)하고나

二, 듯느냐 世界蒼生(세계창생)의 / 塗炭(도탄)에 우짖는 소리 / 人乃天 眞理(진리)의 웨침 / 웨치며 나아가거라 나아가 / 救援(구원)은 東方(동방)으로서 / 온다고 기별 傳(전)하라 (*3절까지 있음)

<인내천의노래>는 무기가 아니라 인내천주의로 평화를 추구해야 함을 강조하며, <중학원가>는 도탄에 빠진 세계의 창생을 인내천진리로 구하자고 독려하는 내용이다. 그 외 제139호(포덕63.3.15.) 93쪽의 <우리唱歌(창가)>(장재문, 張載文), 제146호(포덕63.11.15.) 56쪽의 <천상은 지상으로>(황택선, 黃澤善), 제286호(포덕77.5.15.) 25쪽의 <꽃봄노래(花春歌)>(음성학인)도 인내천주의로 깨쳐 일어나 민족의 역경을 극복하고 지상천국건설로 나아가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래는 노동을 천시하고 일하기를 싫어하는 세대에 대한 비판과 노동의 신성함을 강조한 곡이다.

제164호(포덕65.5.15.) 25쪽: <거룩한노동> / 의주 한빛

3, 안저놀고 먹는인생 안된놈이 분명하고 / 씹을흘려 버는사람 착한사람 분명컨만 / 악한놈을 귀타하고 착한이를 천타함은 / 어찌하여 그러한가 모를네라 그연고는 / 그림으로 사람마다 놀기로만 일삼으니 / 그중 류만 만허짐이 이런까답 아니었나 //.....

5, 직업이란 천하대본 거룩할손 로동인줄 / 이와가터 몰랐스니 그무엇을 알엇스리 / 한울님이 사람내로 세상만물 맞기시며 / 벌어먹기 조호라고 손과발을 주시었네 / 일하기가 참실커던 밥먹기를 굶칠지라 //

6, 시대한번 쏘박귀니 로동세월 닥쳐왔네 / 직업위해 일음함은 괴롬뿐만 인줄아나 / 자미들여 하여보면 괴롬두곤 즐김만네 / 일하고나 밥맛잠맛 무슨맛이 그러하리 / 신테(신체)건강 언제던지 마음단련 절로되네 / 여러분아 벗임네야 나아가차 일터으로 //

당시 교단 내에서는 노동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다. 월보 제153호(포덕64.6.15.)부터 ‘단편시보(短片時報)’라는 란이 개설되어 각종 시사적인 문제를 전하는데, 포덕 64년 하반기에는 여직공들의 동맹파업 소식 등 노동운동 관련 내용들이 연속적으로 보인다.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와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일에도 교단이 앞장서서 실천했음을 알 수 있다. 아래 기사를 보자.

제157호(포덕64.10.15.) 45쪽: 少年會巡劇狀況(소년회 순극 상황) “兼二浦(겸이포) 天道教少年會(천도교소년회)에서는 其經營(기경영)인 普信勞動夜學院(보신노동야학원)의 經費(경비)를 補助(보조)하기 爲(위)하여 少年少女(소년소녀)로 巡回劇團(순회극단)을 組織(조직)하여 各地(각지)로 巡回中(순회중)인데.....”

노동야학원 경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하기 위해 소년소녀 순회극단이 순회공연을 한다는 내용이다. 연극은 줄거리가 있고, 대사를 통해 직접 의사전달과 주장이 가능하며, 고가의 악기나 장비 없이도 공연이 가능하고, 선전과 자금마련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자주 활용된 듯하다.⁶⁾ <거룩한 노동>과 순회극에 대한 기사는 문화예술을 통해 적극적으로

당대의 민중들과 함께 하고자 했던 천도교 내의 사회적 인식과 실천을 보여준다.

그 밖에 <우리의노래>(제124호 39쪽), <포덕선전가>(제250호 1쪽), <천일송>(제244호 1쪽) 등이 월보에 실려 있다. 이들 노랫말을 오늘날의 정서에 맞게 다듬어 민족적 숨결과 현대적 색채를 불어넣는다면 천덕송 다양화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월보에 실린 천덕송 관련 기사들을 살펴보겠는데, 천덕송이 특히 부인 포덕과 교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수단이었음을 아래 인용문들은 보여주고 있다.

제282호(포덕77.1.15.) 40쪽: 부인운동과 방법 / 성암 김동환 “(41쪽, 44쪽).....선전과 교화에 음악이 필요한 것은 지금 내가 더 말할 필요가 없이 이미 세상이 다 인정하는 바이니 부인활동에 있어서도 음악의 도움이 있으면 더 한창 효력이 날 것으로 믿는 바이다.....우수한 교회에는 대개 풍금을 비치하여 시일시간하나 기타 의식에 사용하고 있으며..... / 현재 우리가 부르는 천덕송을 소리판(레코-드)으로 만드러서 유성기에 사용케 한다면 (44쪽에 계속) 천덕송 곡조도 속히 배울 수 있을 뿐 아니라부인교역자가 쉬회할 때에 유성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각 가정을 방문한다면 단순무미하지 아니하고 흥미도 있을 뿐 아니라.....”

제284호(포덕77.3.15.) 21~22쪽: 선천교회 부인강좌상황 “평북선천교회에서는.....강좌과목(講座科目)은 낮(晝間)에는 교리, 교사, 오관해설, 천덕송연습 등이었고.....” (*제285호는 결본임)

제286호(포덕77.5.15.) 7쪽: 음성교회 부인강좌 / 음성교회 “.....히히낙낙 그 가운데 (시구시구 좋을시구 이내신명 좋을시구) 라는 대신사의 흥겨운 노래까지 불렀었다.....”

제287호(포덕77.6.15.) 22~23쪽: (전주교회) 단암형에게(강좌를 맞이고) / 이성수 “.....더욱 현실께서 신곡조로 부르시는 천덕송에는 일반이 여간 재미있게 배우지 아니하였습니다.....일만 교인은 기쁨과 질거움을 이기지 못하였으며 동년에 사는 녀학생들까지 와서 날이 저물도록 재미있게 천덕송을 합창하고 하였습니다.....신천덕송에 오늘에야 우리교가 혁신이 되는구나 하는 감상이 이러남은 제뿐 아니라 일반이 다 같이 느낀바입니다.....또 천덕송으로 말하면 전일에는 구식서당에서 글익는 식이었는데 금일 신곡조야말로 현대에 부합된 곡조로서 하루속이 일반교인에게 보급되지 아니하면 아니 될 줄로 압니다.....(23쪽).....그리고 다음 시일부터는 신천덕송으로 시일을 보도록 결정이되었습니다.....”

포덕7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부인운동은 그해 2월부터 지방에서 시작하여 전국 각지에서 교리, 교사, 천덕송, 교회 상식, 한글 등을 중심으로 강좌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중앙에서 8월 15일부터 13일간 1백여 명의 수강생이 참가한 특별부인강좌가 열렸다. 이 모든 부인강좌에 천덕송 연습시간이 매일 있었으며, 준비물에 천덕송 책자가 포함되고, 중앙에서 파견한 천덕송 강사(박양신, 김숙, 박한규 등)가 노래를 지도했다.

이와 같이 부인강좌에 천덕송 관련 기사가 집중되어있는 것은 천도교 여성운동에서 문화적 방법론을 특히 중시했음을 말한다. 제287호의 인용문은 ‘신천덕송’을 접한 교인의 감상문으로, 새 천덕송이 당시 교인들로부터 크게 환영받았을 뿐 아니라 주민들도 함께 불렀음을 알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제강점기의 천덕송은 새로운 경향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종교 음악으로서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천덕사운을 노래함과 동시에 민족적 자부심을 회복하고 세계평화와 평등에 기여할 것을 역설하였으며, 교인들뿐 아니라 이웃의 일반인들에

6) 월보에는 연극대본도 두 편 보이는데, 제137호(포덕63.1.15.) 103쪽에는 근대극의 선구자였던 현철(玄哲)이 쓴 천도교소년회용 대본인 소년소녀 가극(歌劇) 「路上(로상)」이, 제296호(포덕78.6.15.) 25쪽에는 김호준(金虎俊)이 쓴 합창이 동반된 아동극 『병아리』의 대본이 있다. 당시 천도교 내에서 각종 연주회와 강연회뿐 아니라 연극도 중요한 포덕교회사업의 매개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다만 당시의 천덕송이 근대적 요소를 적극 반영한 반면, 민족적 양식과 전통적 요소는 온전히 계승하지 못하였는데, 그것은 오늘의 과제로 남았다.

어제의 천덕송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 광복 이후 변화한 시대의 상황에 맞추어 당대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는가? 우리의 이웃들, 인오동포(人吾同胞)·물오동포(物吾同胞)에 이르기까지 스승님들의 가르침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전개하였는가? 대신사께서 ‘동학’이라 이름 붙이신 바와 같이 우리의 정체성을 뚜렷이 하기 위해 깊이 고민하고 애썼는가? 포덕132년 이후 오랫동안 담보상태에 놓여있는 오늘의 천덕송에 대해, 21세기적 관점에 입각한 엄중하고 냉철한 자기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음호에 계속)